



‘인라인 스키(?)’ 타는 골목의 천사들



광주시 서구 금호동 성당 뒷골목에서 천사 같은 4명의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겨울바람이 춥지도 않은지 해맑은 미소로 바람을 가르며 골목길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자신의 키에 꼭 맞는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말입니다.

무엇을 하나 지켜보더니 아이들은 막대기를 ‘풀데’ 삼아 균형을 유지하며 내리막길을 멋지게 달려나갔습니다. 어디에서 배웠는지 아이들은 눈길이 아닌 아스팔트에서 스끼를 흘내 내고 있었습니다. 요리조리 거침없이 달리는 모습이 보통 실력이 아니더군요.

나무 장비(?)까지 직접 장만했다는 이 아이들은 누구보다 근사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처음 스끼를 타던 이들의 모습이 저러했을까요?

학원에, 공부에 찌들어 골목길에서 뛰어노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릴 때는 추운 줄도 모르고 하루 나절을 뛰어다니며 보냈었는데 말입니다. 이 집 저 집을 무대 삼아 숨바꼭질을 하고, 포랫자루로 뚝딱 만든 썰매를 타고 눈길을 질주하던 어린 시절의 낭만을 지금의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요?

어둠이 내리는 저녁나절 골목길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시던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문득 그리워집니다.

창조성과 감수성으로 무럭무럭 자라라는 우리 아이들. 우리 개구쟁이들이 해맑은 모습으로 골목길을 누비는 것을 더욱 많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최현배기자 ahj@kwangju.co.kr



오늘의 유머

▲주례비

어떤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주례비 걱정을 하다가 대학 은사님께 주례를 부탁하면서 직접 여쭈었다.

“교수님 주례비는 얼마나 드려야 합니까?”

“신부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주게나”

결혼식 날, 교수가 받은 주례비는 단돈 1만원이었다.

‘아무리 안 예쁘다고 해도 그렇지..’

교수는 신랑이 괜찮았기 때문에, 신부의 얼굴이 궁금하기도 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고 교수는 멋지게 주례를 끝마쳤다.

결혼식이 끝난 후 교수는 조용히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5천 원을 건네 주며 이렇게 말했다.

“자, 여기 거스름돈 일세”

▲무슨 의자?

철학강좌의 기말고사 날이었다.

담당 교수는 강의실에 들어선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자 하나를 책상에 옮겨놓고 칠판에 이렇게 썼다.

“나에게 이 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시오”

학생들은 끔끙대면서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학생만은 태연하게 한 줄만 쓰고 답안지를 제출했다. 그 학생의 답안을 들여다 본 교수는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답안에는 “무슨 의자 말입니까?”라고 쓰여 있었다.

▲신병교육증

조교 : 군대에서는 모든 말이 ‘다’나 ‘까’로 끝나야 합니다.

신병 : 네!

조교 : 모든 말이 ‘다’나 ‘까’로 끝나야 한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신병 : 알았다.

조교 : (당황하며)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병 : 알았다니까!

▲전화 때문에

회사의 창구에서 전화를 받고, 손님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여직

원이 있었다. 과장은 그녀에게 봉급 인상 건을 위에 올렸다면서, 사장이 재가하면 봉급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뒤 과장이 그녀를 불렀다.

“미안하네, 사장이 봉급 인상을 승인하지 않았어.”

그녀가 물었다.

“이유가 됩니까?”

과장이 대답했다.

“자네가 일은 잘 안 하고 빙동빙동 놀기만 한다고 하셨네. 사장이 볼 때마다 자네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나 전화를 불잡고 있는다고 말이야.”

▲무엇이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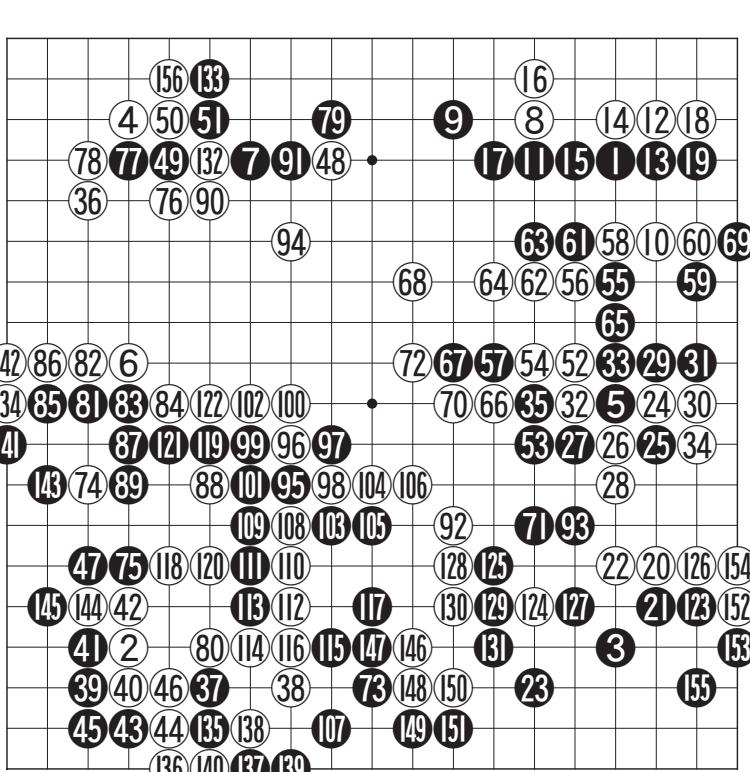
(아이의 둘상에 지폐와 성경 그리고 소주 한 병이 올려져 있었다.)

아내 : 여보, 이게 다 뭐예요?

남편 : 응, 돈을 집으면 사업가, 성경은 성직자, 술을 집으면 술꾼이 되겠지.

(아이는 상을 뚫어보다가 지폐를 집어 손에 쥐었다. 그런 다음 다른 손으로 성경을 집어들어 겨드랑이에 끼더니 이내 소주병을 움켜잡았다.)

남편 : 휴~ 저 녀석은 앞으로 정치인이 될 것 같군.



제5회 KBC사장당

초등 최강부 결승전

양문영군, 마지막 무대 우승

총보(1~156)

白 양문영

(비아초등 6)

黑 김영환

(금구초등 6)

결국 백 156 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양문영군이 김영환군을 누르고 초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시합에서 영예의 우승컵을 차지했다.

김영환군의 패인은 초반 우연의 전투가 종료된 이후 축머리를 간과한데 있다. ‘축을 알면 18급’이라던 격언도 있듯이 바둑을 처음 배우면서 가장 먼저 알게되는 것이 축이다.

축은 바둑의 가장 기초인 셈인데 고수의 세계로 들어갈수록 이 축이 또한 아주 어려운 분야가 된다.

단순하게 축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

가 아니라 축머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활용당하지 않는가 아주 중요한 변

수가 되는 것이다.

백 52로 축을 빠져나가자 김영환군은 허를 뚫린 듯 갑작질공하며 결국 중앙의 흑 두점을 현납하고 말았는데 이 두점이 잡힌뒤 중앙이 백의 독무대가 되면서 주도권을 완전히 백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이 두점은 대마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이후 김영환군은 형세를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으나 양문영군의 선방에 막혀 결국 두손을 들고 말았다. 백 156 수 끝. 불계승.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제10기 여류명인전 개막

루이아이웨이 9단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여류명인전의 열번째 대회가 개막했다.

백 52로 축을 빠져나가자 김영환군은 허를 뚫린 듯 갑작질공하며 결국 중앙의 흑 두점을 현납하고 말았는데 이 두점이 잡힌뒤 중앙이 백의 독무대가 되면서 주도권을 완전히 백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이 두점은 대마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이후 김영환군은 형세를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으나 양문영군의 선방에 막혀 결국 두손을 들고 말았다. 백 156 수 끝. 불계승.

3차례 예선을 걸쳐 선발된 7명과 시드 진출자 조혜연 7단이 대결을 벌여 최종 도전자를 가린다. 도전자는 지난 제9기 우승자인 루이아이웨이와 여류명인 타이틀을 놓고 격돌하게 된다.

/오광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9일(화) 12월 29일(화)



36년丙子생 체체속에 실리도 있다. 48년戊子생 德은 慈善에 있다. 60년庚子생 實을 사기 도난의 손해수가 있으나 조심하며 지내라. 72년壬子생 매사에 관용을 생각하라. 84년甲子생 육신을 버리지 않으려고 결파는 손해로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 05:45



37년丁丑생 불편사가 발생할 수다. 49년己丑생 부부사이에 새로운 사랑과 신생한다. 61년辛丑생 둘째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라. 73년癸丑생 발전이 악수되고 좋은 기회를 맞는다. 85년乙丑생 주변을 웃기거나 자신은 우를 하다. 행운의 숫자 : 08:43



38년壬寅생 모든 일이 침체나 종래는 안정하게 자리한다. 50년庚寅생 남의 말로 손해가 우려되니 가려서 들으라. 62년壬寅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74년甲寅생 침착하게 서행하면 오히려 편리하다. 행운의 숫자 : 09:39



39년己卯생 자녀 직업으로 인해서 고역이 종종해나 마을을 다스려라. 51년辛卯생 친구 친척 간에 좋은 일은 발생하나 글씨를 조심하라. 63년癸卯생 평상일을 짐짓하라 발전이 있으리라. 75년乙卯생 지혜하고 결파도 늦어진다. 행운의 숫자 : 14:42



40년庚辰생 시비가 생겨도 자신이 유리하다. 52년壬辰생 비비 송사 구설 분쟁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 64년甲辰생 시방이 소란하니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라. 76년丙辰생 배우에 조심을 다해 도 불만스럽게 고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7:37



41년辛巳생 응호상반이 그 결과는 반반이다. 53년癸巳생 희비가 엇갈리나 하루로는 좋고 하루로는 나쁘다. 65년乙巳생 조급만 노력을 하면 성사 될 수 있으니 행동해야 하리로다. 77년丁巳생 괴우 만큼 잊을 수이지마 베풀면 득이 온다. 행운의 숫자 : 07:43



42년壬午생 增하는 행운이고 주변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수선하다. 54년甲午생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 좋으리라. 66년丙午생 제자 조언조롭게 신생된다. 78년戊午생 화려한 수련에 대고 대고 허리다. 행운의 숫자 : 12:34



43년乙未생 새 문서가 눈물 낸다. 55년丁未생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화 된다. 67년壬未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79년己未생 예기치 못한 역습으로 손실은 있으나 격차는 없다. 행운의 숫자 : 03:41



44년甲申생 餘을 있는 하루로다. 56년丙申생 출신자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68년庚申생 사기꾼이 달려온다. 주변을 정리하라. 80년庚申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다. 행운의 숫자 : 03:32



45년乙酉생 仲인이 나타나서 결말을 내놓는다. 57년丁酉생 전화 위복이 되니 감사할 줄 알아야 하리로다. 69년庚酉생 배우와 이성교수가 있을 수 있도록 으리라. 81년辛酉생 내 것 주고 속상한다. 행운의 숫자 : 21:39



46년丙戌생 비정한 고총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70년庚戌생 부부사이에 일곱 불일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70년庚戌생 가정과 배우의 불편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격진된다. 82년壬戌생 적극적인 사고로 행동하고 뛰어라. 행운의 숫자 : 11:29



47년丁亥생 가네가 시끄럽다. 인자함을 보여주라. 59년己亥생 이 해에는 선관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로다. 71년壬亥생 이간질 할까봐 사람이나운다. 76년丙亥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탄하게 진행한다. 행운의 숫자 : 01:40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뱃드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086>

I'm afraid you're too late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A : I need to purchase tickets for tonight's game.
B : I'm afraid you're too late.

A : You're kidding.

B : No, we sold out an hour ago.

A : 오늘 밤 경기 입장권, 주세요.

B :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p